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4 1

지금 오키나와(沖繩) 상공에 있습니다.

어젯밤에 오키나와 바다로 기우는 저녁놀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남국의 일몰은 언제보아도 아름다워 낯익은 사람처럼 마냥 보게됩니다. 지진 재해후의 오키나와 방문은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5 일간의 일정으로 여섯차례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주일예배 후 오후에 공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지진 재해가 잊혀지지 않도록 체험자로서 전해야한다는 사명을 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지진 재해 직후 관서(關西)지역을 방문해보니 이곳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전기가 켜지고 전철이 달리고 통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일본 국내에서 이런 건 왜지?’ 또한 텔레비전에서 코메디 프로그램이 나오면 ‘아직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국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지역부터라도 일상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지금이야말로 웃음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하고는 있습니다만,,, 제 머리가 이해하는 대로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때는 왠지 모든 것이 공허하고 서글프기만 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는지 지금도 생각하곤 합니다. 시카고를 방문할 때 현대사회의 극심재해 상황에 관한 리포트를 들었습니다. 정보화 사회화된 현대의 국제사회적 정보망을 통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듯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세계규모의 재해는 해마다 심각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전에 타이에서 일어난 홍수피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반입될 수입품이 정체되거나 자동차산업의 생산 정지 등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없던 도시화와 국제화가 최근에 들어서 피해의 확대를 촉진시키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세계규모로 확대되고 있는 곤란기에 먼저 뛰어들어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된 것일까요?언제 그 누군가 우연히 이러한 재난을 만난다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진 재해를 갑자기 당했을 때, 그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만 하는지, 지역과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할 것인지, 그리고 목사의 결단 등등,,, 사실 요새 저희부부는 ‘만약 다른 교회목사라면 이러한 사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취할 것인지’ ‘다른 교회는 어떻게 대응했을 것인지’라는 생각을 하며 누군가에게라도 묻고 싶고

매달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울며 아파하는 것은 언젠가 그 누군가를 위한 것일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화제를 돌려 저는 오늘 저녁 오쿠타마(奥多摩)로 돌아와, 내일은 방송국의 취재를 받고나서, 밤 차로 건축할 교회 토지의 매매계약을 하기 위해 후쿠시마로 향하게 됩니다. 지금은 기내 창너머를 통해 황혼으로 물들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솜사탕의 구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지난주에도 후쿠시마에서 도쿄로 돌아오는 도중에 차에서 바라보는 저녁놀도 너무나 선명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목이 미어지는 슬픔으로 가득 차있어도 하늘은 언제나 마치 하나님이 물들여 짜놓으신 광활하고 높은 세계를 펼쳐보이는 듯합니다.

역시 고개를 아래로 떨구지 말고 눈높이 들어 하늘을 향해 더욱더 큰 세계를 바라보겠습니다. 지상에서의 답답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욱더 높이 눈들어 하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전에 지진재해 전날에 왠지 마음이 불안해지는, 마치 지진구름과도 같은 저녁놀을 목격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보는 거의 모든 노을이 참으로 아름다워 넋없고 바라보곤 합니다. 그 노을 하나 하나는 경이로운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대부분의 일상이 지진재해가 아닌 평온한 나날로 돌아왔습니다.

가끔은 거친 태풍등을 우연히 만날 때도 있습니다만 거의 날마다 평온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이 사실에 감사하며 하루 하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날로, 풍요로운 은혜의 날로 음미하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지요. 어쩌면 옆도 돌아보지 않고 무언가에 홀린 듯이 자신이 만든 세계 속에서 앞으로 앞으로만 급히 달려오지는 않았는지요? 과연 지진 재해가 이상했던 것인지 아니면 우리들의 영위가 이상했는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시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 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 편 1~8 절

10 월 25 일(화) 오키나와(沖繩) 상공에서
사토 아키라(佐藤彰)